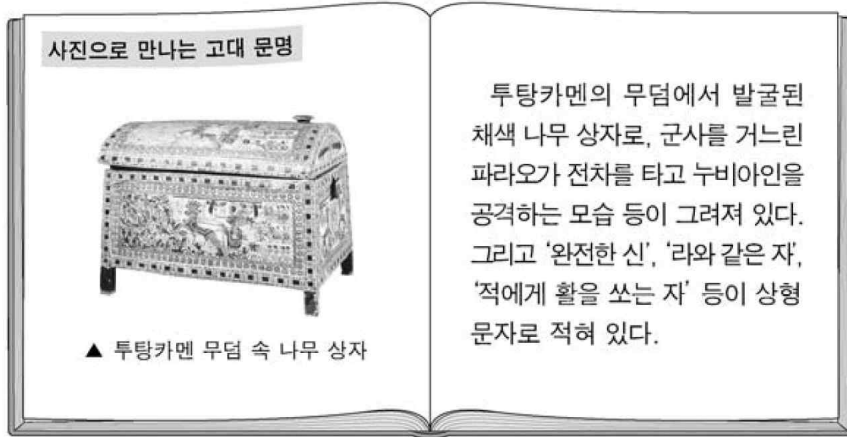


다음 유물을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사자의 서를 제작하였다.
- ②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
- ③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하였다.
- ④ 하라파에 계획도시를 건설하였다.
- ⑤ 갑골에 점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단원 :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주제 : 이집트 문명

▶선지 분석

② 메소포타미아 문명, ③ 그리스 아테네의 건축, ④ 인더스 문명, ⑤ 중국 문명의 상 왕조에 대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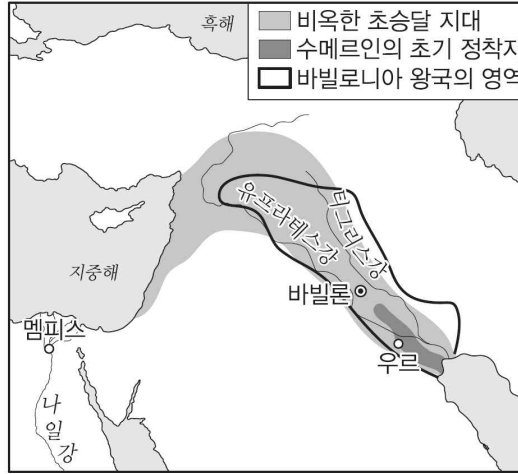
PLUS CHECK!!

▣ 메소포타미아 문명

(1) 성립 : 기원전 3500년경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메르인이 우르 등의 도시 국가를 세우며 문명을 일으킴

(2) 특징

- ① 정치 : 왕이 신의 대리자로서 신권(신정) 정치 실시
- ② 종교 : 현세를 중시하는 세계관(“길가메시 서사시”), 도시마다 지구라트 건설
- ③ 문화 : 쉐기 문자 사용, 태음력과 60진법 사용, 점성술 발달
- ④ 바빌로니아 왕국 : 아무르인이 세움, Hammurabi 법전 편찬



▲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

나는 벨 신에게 부름을 받은 통치자인 함무라비이다.
 제1조 남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한 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고발인을 사형에 처한다.
 제22조 강도질을 한 사람이 붙잡혔다면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왕은 이전의 법을 집대성하여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 법전은 282개의 법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바빌로니아 왕국의 사회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형벌은 복수주의적 성격이 강하였고,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법이 적용되었다.

▣ 이집트 문명

(1) 성립 : 기원전 3000년경 나일강 유역에서 도시 국가들을 통합한 통일 왕국 등장

(2) 특징

- ①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 : 강 주변의 땅이 비옥하여 일찍부터 여러 도시 국가 형성
- ② 발전 :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이어짐
- ③ 정치 : 파라오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신으로 군림하는 신권 정치 실시
- ④ 종교 : 내세적 세계관(미라, 피라미드, ‘사자의 서’)
- ⑤ 문화 : 상형 문자 사용(파피루스에 기록), 태양력과 10진법 사용, 측량술과 기하학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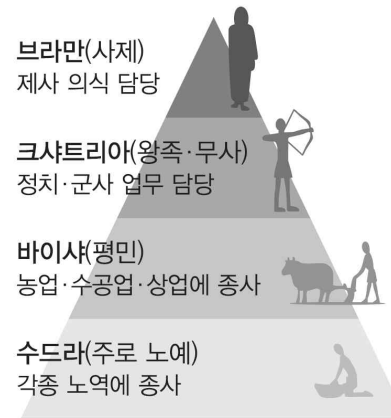
▣ 인도 문명

(1) 인더스 문명

- ① 성립 :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에 도시 문명 출현, 드라비다인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
- ② 특징 :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건설(계획도시-벽돌로 쌓은 성벽, 포장도로, 주택, 하수 시설, 공중목욕탕, 곡물 창고 등을 갖추), 청동기와 상형 문자 사용, 인장 사용,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

(2) 아리아인의 이동

- ① 이동 :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 → 기원전 1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의 펀자브 지방에 정착 → 기원전 1000년경 갠지스강 유역 진출
- ② 특징 : 철제 농기구 사용, 카스트제 형성
- ③ 종교 : 브라만교 성립, 자연 현상 등을 찬미하는 “베다” 제작



▲ 카스트제의 신분 구조

▣ 중국 문명

(1) 신석기 문화 : 황허강 유역, 창장강 유역 등에서 발달, 채도와 흑도 등 사용

(2) 하 왕조 : 기록상의 왕조, 청동기 사용

(3) 상 왕조

① 성립 : 기원전 1600년경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 등장

② 정치 : 점을 쳐서 신의 뜻을 알고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신권 정치

③ 특징 : 은허 유적(청동 무기 및 제기, 갑골문), 태음력 사용, 순장의 풍습

(4) 주 왕조

① 발전 : 기원전 11세기경 상을 멸망시키고 호경에 도읍, 황허강 유역 지배 → 창장강 유역까지 세력 확대

② 정치 : 봉건제 시행(왕은 직할지 통치, 나머지 지역은 왕족과 공신을 제후로 삼아 이들에게 봉토로 분배하여 다스리게 함)

③ 특징 : 종법(직계 적장자 상속, 혈연관계) 중시, 천명사상 강조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종 대에 이르러 (가) 은/는 중국의 일부를 다스리게 되면서 관제를 남과 북으로 나누었다. 유목 민족은 고유의 제도로 다스리고, 한인에게는 중국의 제도를 적용하였다. ... (중략)... 북면관은 궁장(宮帳)·부족·속국의 일을, 남면관은 한인의 주현·조세·군마의 일을 관장하였다.

- ① 부병제를 실시하였다.
- ② 사서대전을 편찬하였다.
- ③ 연운 16주를 차지하였다.
- ④ 아구다(타)가 개창하였다.
- ⑤ 만한 병용제를 운영하였다.

▶단원 :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주제 :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 북방 민족의 대두

▶선지 분석

① 부병제는 수·당대에 정비된 군사 제도로 755년 안사의 난 이후 모병제로 변화되었다. ② 명대 성리학이 통치 이념으로 확립되면서 『사서대전』, 『오경대전』, 『영락대전』 등이 간행되었다. ④ 1115년에 건국된 금, ⑤ 청은 주요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임명하는 만한 병용제를 실시하였다.

▣ 북방 민족의 대두

(1) 거란(요)

- ① 성장 : 야율아보기가 부족을 통합하여 건국(916) → 발해를 멸망시킴, 화북의 연운 16주 차지, 송과 화친을 맺고(전연의 맹약) 그 대가로 물자를 제공받음
- ② 통치 체제 : 북면관제 · 남면관제 실시로 유목민과 한족을 이원적으로 지배
- ③ 문화 : 고유 문자 사용(전통문화 유지), 대장경 편찬 등

(2) 서하 : 11세기 중엽 탕구트족이 건국, 동서 교역로 장악, 송으로부터 세폐를 받음, 고유 문자 사용

(3) 여진(금)

- ① 성장 : 아구다가 부족을 통일하고 건국(1115) → 송과 연합하여 거란(요)을 공격한 후 정복, 이후 송의 수도인 카이펑을 함락하고 송 황제 생포(정강의 변) → 수도를 중도(베이징)로 옮김(화북 지역 지배)
- ② 통치 체제 : 여진족은 맹안 모극제, 남쪽의 정복 지역(한인)은 주현제로 통치
- ③ 문화 : 고유 문자 사용



▲ 거란(요)과 북송의 영역



▲ 금과 남송의 영역

밑줄 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아테네는 에게해 연안의 도시 국가들에게 동맹의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맹국은 시민들이 출병하길 싫어하여 금전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였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아테네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게 되었고 동맹국들을 더욱 압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테네가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코르키라와 동맹을 맺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일부 도시 국가들이 아테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 ① 라티퐁디움이 확산되었다.
- ② 아테네가 해상 제국으로 발전하였다.
- ③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 ④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정을 수립하였다.
- ⑤ 클레이스테네스가 도편 추방제를 도입하였다.

▶단원 :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주제 : 고대 지중해의 세계 -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 ~ 기원전 404)

▶선지 분석

① 로마와 카르타고가 충돌한 포에니 전쟁(기원전 264 ~ 기원전 146) 이후 나타난 로마 공화정의 위기와 관련된 현상이다. ②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 ~ 기원전 479)의 결과이다. ④·⑤ 기원전 6세기 아테네의 상황이다.

▣ 아테네의 발전

- ① 귀족정 : 귀족들이 정치적 실권 행사
- ② 평민의 성장 : 상공업 발달 → 부유해진 평민들이 중장 보병으로 군대의 주력 형성 →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귀족과 대립
- ③ 솔론의 개혁 : 재산 정도에 따라 참정권 차등 분배, 귀족과 평민의 불만과 대립
- ④ 참주의 등장 : 사회 혼란을 틈타 페이시스트라토스와 같은 참주가 나타나 정권 장악
- 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 아테네 민주 정치의 기틀 마련
 - 부족제 개편(혈연 중심 → 거주지 중심), 500인 평의회 설치
 - 참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 도편 추방제 마련

우선 시민이 여덟 번째 당번 기간 전에 도편 추방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투표를 한다. 그렇게 하기로 가결되면, 널판으로 아고라를 두르고 열 군데에 입구를 남긴다. 사람들이 그 입구를 통해 부족별로 들어와서는 글을 새긴 면을 아래로 하여 자신의 도편을 내려놓는다. 이 과정은 아홉 명의 아르콘과 협의회가 주재한다. 도편을 세어서 최다이면서 6,000표 이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고소인이든 피고인이든 관련된 송사의 의무를 열흘 내에 정리하고 10년간 도시를 떠나야 한다(후에는 5년이 되었다). 그 기간에 그는 자신의 소유물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받을 수 있다. - 물러 외, “그리스 역사가 단편” -

- ⑥ 페리클레스 시대 : 기원전 5세기 아테네 민주 정치의 전성기
 - 민회의 권한 강화 : 실질적인 입법권 행사
 - 특수직(장군 등)을 제외한 관직과 배심원을 추첨으로 임명(추첨제), 공무 수당 지급(수당제)
 - 한계 : 여성, 거류 외국인, 노예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음

▣ 그리스 세계의 변화

- ① 페르시아 전쟁(그리스·페르시아 전쟁, 기원전 492~기원전 479)
 - 배경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지중해로 세력 확대, 그리스 세계와 충돌
 - 경과 : 그리스 세계가 단결하여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등에서 페르시아군 격퇴
 - 영향 : 아테네의 번영(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어 강력한 해상 국가로 발전)
- ②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기원전 404)
 - 배경 : 델로스 동맹(아테네 중심)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스파르타 중심)의 대립
 - 경과 :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승리, 스파르타의 패권 장악
 - 영향 : 그리스 세계의 내분 심화 →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게 정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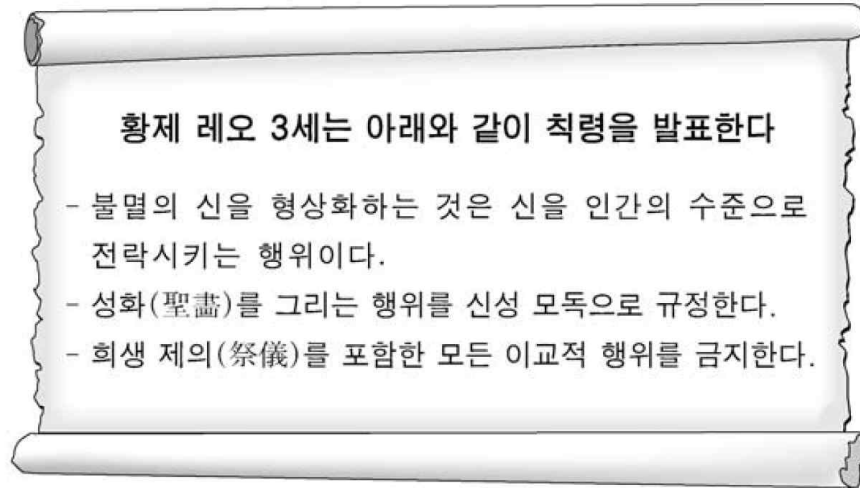
아테네인과 펠로폰네소스인은 에우보이아 점령 이후에 체결된 30년 평화 조약을 깨고 전쟁을 벌였다. 그들이 평화 조약을 깬 이유와 관련하여 나는 이미 그들이 내세우는 불만의 원인과 논쟁을 기록하였으므로, 누구도 그렇게 큰 전쟁이 왜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발발했는지 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록 별로 언급된 바 없으나, 나는 전쟁이 발발한 가장 진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아테네가 강력해지자 스파르타가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스파르타인들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고. - 투키디데스, “역사” -

FINAL CHECK!!

▶ 델로스 동맹

아테네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재침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폴리스들과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였고, 이를 통해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동맹국이 납부한 기금을 델로스섬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델로스 동맹이라 불렸다.

다음 칙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동서 교회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 ② 교황의 아비뇽 유수를 초래하였다.
- ③ 보름스 협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트리엔트 공의회가 개최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⑤ 클뤼니 수도원의 교회 개혁 운동을 촉발하였다.

▶단원 :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주제 :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 성상 파괴령(726)

▶선지 분석

② 아비뇽 유수(1309 ~ 1377)는 프랑스의 필리프 4세와 관련된 사실이다. ③ 1122년의 보름스 협약은 하인리히 5세와 교황 칼리스토스 2세가 체결하였다. ④ 1545 ~ 1563년에 걸쳐 개최되었다. ⑤ 수도원 운동은 10세기의 사실이다.

PLUS CHECK!!

▣ **크리스티교의 성장과 교황권**

① 동서 교회의 분열

- 성상 파괴령(726) :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반포 → 동서 교회(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와 로마 교회)의 대립 격화
- 동서 교회의 분열(1054) :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지배하는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교황 중심의 로마 가톨릭교회로 분리

②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장과 세속화

- 교회의 성장 : 봉토와 기증받은 토지 등을 기반으로 세력 확대, 교황을 정점으로 대주교, 주교, 사제에 이르는 계서제(계급과 서열제) 구축
- 교회의 세속화 : 세속 권력이 성직자 임명권 차지, 성직 매매 등 부패와 타락 → 교회를 정화하려는 개혁 운동 전개(10세기 초 클뤼니 수도원 중심)

③ 교황과 황제의 대립

- 카노사의 굴욕(1077) : 성직자 서임권을 둘러싼 교황(그레고리우스 7세)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인리히 4세)의 대립 → 교황의 황제 파문 → 황제가 카노사성으로 교황을 찾아가서 사죄
- 교황권의 성장 : 보름스 협약(1122)으로 교황이 성직자 서임권 차지 → 13세기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때 교황권 절정(‘교황은 해, 황제는 달’에 비유)

▣ 교황권의 쇠퇴

- ① 배경 :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교황의 권위 약화
- ② 아비뇽 유수(1309~1377) :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 → 필리프 4세가 교황을 굴복시킴,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짐
- ③ 교회의 대분열(1378~1417) :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어 대립
- ④ 교회 개혁의 움직임 : 위클리프, 후스의 교회 비판(“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 강조)
- ⑤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 :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 후스 화형, 새로운 단일 교황 선출 (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

첫째, 이 모임은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의회를 구성하며 가톨릭교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권위를 받으며, 교황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계급과 조건에 속한 어떤 사람이라도 신앙, 대분열의 종식, 신의 교회를 머리에서 팔다리와 몸까지 개혁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서 공의회에 복종해야만 한다. - “크리스트 교회 문헌” -

▣ 종교 개혁과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응

-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 교황과 교회의 권위 재확인, 폐단 시정 노력, 교회 내부의 결속 강화(종교 재판소 설치, 금서 목록 작성 등)
- 예수회 설립 : 에스파냐의 로욜라가 설립, 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에서 선교 활동 전개

밑줄 친 '반란'이 일어난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천보 4년, 양옥환은 귀비로 책봉되었다. 황제의 총애를 받은 덕분에 그녀의 친족들은 벼락출세를 하였다. 그중 재상이 된 양국충은 안녹(록)산을 시기하여 그를 제거하려다가 안녹산의 반란을 초래하였고, 황제를 모시고 피란 가던 도중에 양귀비와 함께 죽음을 맞았다.

- ① 탈라스 전투에 참전한 군인
- ② 청명상하도를 감상하는 황제
- ③ 균전제의 실태를 조사하는 관리
- ④ 조로아스터교 사원에 가는 신도
- ⑤ 불경을 구하러 인도로 떠나는 승려

▶단원 :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주제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당(618 ~ 907)

▶선지 분석

① 751년, ②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는 북송 시대(960 ~ 1127) 한림학사였던 장택단이 수도 카이펑의 청명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③ 균전제는 485년 북위 때 시작되어 당 왕조 시기 제도화되었다. ④ 당의 수도 장안에는 이슬람교 사원, 조로아스터교 사원, 네스토리우스교 사원 등 다양한 외래 종교 사원이 건립되었다. ⑤ 당의 승려인 현장(602 ~ 664), 의정(635 ~ 713) 등은 불경을 구하러 인도를 순례하였다.

▣ 당의 발전과 쇠퇴①

- ① 건국(618) : 이연(고조)이 장안을 수도로 삼고 수립
- ② 발전

태종	동돌궐 정복, 율령 체제 정비 → 정치적 번영(정관의 치)
고종	서돌궐 정복,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킴 → 영토 확장
현종	경제 발전 등 번영의 시기(개원의 치) → 후기에 균전제, 부병제 약화 등 사회·경제 혼란 발생

- ③ 쇠퇴 : 주변 민족의 위협(7세기 돌궐·토번, 8세기 위구르 등), 현종 때 안사의 난(755~763) 이후 절도사의 독자적 세력 강화 → 중앙 정부의 통치력 약화, 환관의 횡포, 장원의 증가(균전제 붕괴, 농민 몰락) → 황소의 난(875~884) 등 농민 봉기로 더욱 약화
- ④ 멸망 : 절도사 주전충에게 멸망(907) → 5대 10국 시대 전개
- ⑤ 통치 체제 : 율령 체제의 완성 →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
 - 통치 제도 : 3성 6부(중앙)와 주현제(지방)
 - 농민 지배 :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 8세기 이후 균전제 붕괴 시작, 모병제 시행, 안사의 난 이후 양세법 실시
 - 대외 정책 : 정복 지역에 도호부 설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미 정책 실시

▣ 당의 발전과 쇠퇴②

⑥ 사회와 경제

- 귀족 중심의 사회 : 문벌 귀족이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 독점·특권 차지, 과거제를 통한 관리 선발에서도 문벌 중시
- 농업 생산력 증대 : 화북에서 2년 3작 가능
- 상업 발달 : 비전(일종의 약속 어음) 사용, 상인 조합인 행(行) 출현
- 국제 무역 : 서역 상인들이 사막길·바닷길 등을 통해 당과 교역, 시박사(광저우)를 통해 무역 관리, 수도 장안과 대도시에 각국 유학생·상인 등 왕래

⑦ 문화

특징	귀족적, 개방적이고 국제적 성격
학문	과거제에 힘입어 유학 발달, 공영달이 “오경정의” 편찬(훈고학 집대성, 과거 수험서로 활용)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 : 여러 승려의 활동(현장, 의정 등이 인도 순례 후 경전 수입·번역), 선종 등 새로운 종파 유행 • 도교 : 황실의 보호를 받으며 융성 • 서역 종교 : 조로아스터교, 네스토리우스교(경교), 마니교 등의 유행, 장안에 사원 건립
문학	귀족 취향의 작품 유행, 이백·두보 등의 시인 활약
공예	당삼채(이국적 특색)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가)의 국왕은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를 포위하고서, 성채에 제일 먼저 오르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공표하였다. 하지만 성공하는 병사가 없어 모두가 단념하고 있을 때, 히로이아데스라는 자가 홀로 리디아의 경비병이 배치되지 않은 절벽을 기어오르자 다른 병사들도 따라 올라갔다. 수많은 병사들이 성채에 올라 마침내 사르디스가 함락되었고, 리디아는 멸망하였다.

- ① 이집트를 정복하였다.
- ② 아무르인에 의해 세워졌다.
- ③ 신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였다.
- ④ 이베리아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⑤ 카르타고 등의 식민 도시를 건설하였다.

▶단원 :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역사

▶주제 :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선지 분석

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등을 정복하였다. ② 바빌로니아, ③ 유대 왕국, ④ 우마이야 왕조, ⑤ 지중해 등을 무대로 해상 무역을 전개한 페니키아는 카르타고 등의 식민 도시를 건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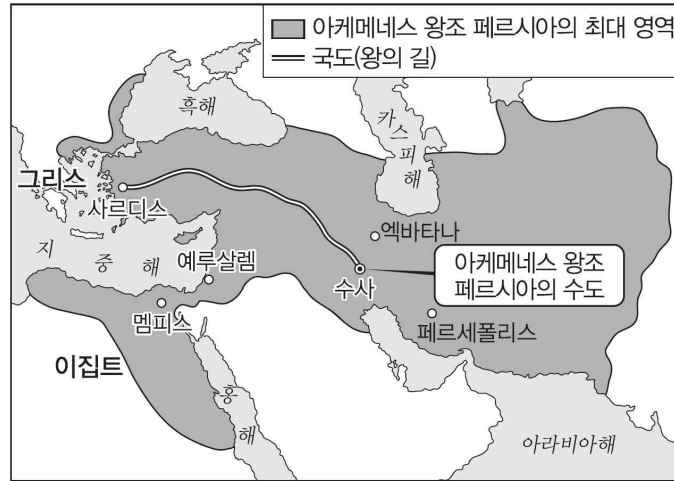
▣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①

(1) 아시리아

- ① 철제 무기와 기마병을 앞세워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 통일(기원전 7세기)
- ② 도로 정비, 정복지에 총독 파견, 수도 니네베에 왕립 도서관 건립
- ③ 피지배 민족을 강압적으로 통치 → 각지의 반란으로 멸망

(2)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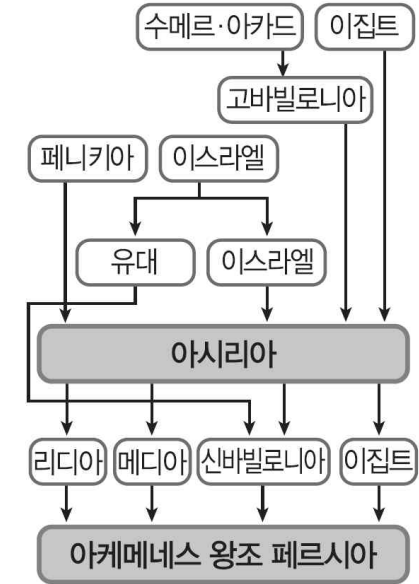
- ① 키루스 2세 : 분열된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기원전 6세기)
- ② 다리우스 1세 : 전국의 속주에 총독과 감찰관(‘왕의 눈’, ‘왕의 귀’) 파견, 도로(‘왕의 길’) 건설과 역참제 정비, 화폐와 도량형 정비
- ③ 관용 정책 : 피지배 민족에게 공납을 받는 대신 그들의 전통과 신앙 존중
- ④ 종교 : 조로아스터교 신봉
- ⑤ 문화 : 페르세폴리스 건설(그리스, 이집트 등의 다양한 문화 반영)
- ⑥ 쇠퇴 : 그리스 세계와의 전쟁에서 패배, 지방 총독들의 반란 →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멸망(기원전 4세기)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

FINAL CHECK!!

▶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변천



▣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②

나는 키루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 야후라 마즈다의 뜻에 따라 말하니 살아 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겠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이유 없이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 키루스 2세의 칙령 -

(3) 파르티아

- ① 건국 :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 이란 계통의 민족이 건국(기원전 3세기)
- ② 발전 : 로마와 인도, 중국(한 왕조)을 연결하는 동서 무역로 장악, 중계 무역으로 번영
- ③ 쇠퇴 : 로마와의 대립으로 쇠퇴 →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멸망

(4) 사산 왕조 페르시아

- ① 건국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걸고 건국(3세기 초)
- ② 발전 :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동서 교통의 요충지를 장악하여 중계 무역으로 번영
- ③ 종교 : 조로아스터교의 국교화, 마니교 등장
- ④ 문화 : 금속 세공품과 유리 공예품 등이 유럽과 동아시아까지 전파됨
- ⑤ 쇠퇴 :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과 왕실의 내분 → 이슬람 세력에 멸망(651)

(가) 제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자르의 모습

(가) 은/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여 제국의 수도로 삼고 국제 무역 도시로 더욱 발전시켰다. 수도에는 여러 나라의 물품을 교역하는 바자르(시장)가 발달하였는데, 향신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장도 있었다. 또한 밀레트 제도가 시행되어 비이슬람교도들도 납세의 의무만 지키면 자치를 누렸다.

- ① 파르티아의 멸망 원인을 조사한다.
- ② 아이바크의 왕조 개창 배경을 분석한다.
- ③ 이븐 시나의 의학전범 편찬 계기를 알아본다.
- ④ 술탄 아흐메드 사원의 건립 목적을 파악한다.
- ⑤ 투르·푸아티에 전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단원 :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역사

▶주제 : 서아시아 전통 사회의 발전 - 오스만 제국(1299 ~ 1922)

▶선지 분석

① 사산 왕조 페르시아, ② 아이바크가 델리 술탄 왕조 시대를 개창하였다. ③ 이슬람의 대표적인 의학자인 이븐 시나(980 ~ 1037)는 아라비아 의학을 집대성한 『의학전범』을 저술하였다. ⑤ 732년 투르·푸아티에 전투는 프랑크 왕국의 메로베우스 왕조와 우마이야 왕조의 충돌이다.

PLUS CHECK!!

▣ 오스만 제국의 발전①

① 성립 :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건국(13세기 말) → 발칸반도 대부분 지배, 술탄의 칭호 사용

② 발전

메(흐)메트 2세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킴(1453), 콘스탄티노폴리스(이스탄불)를 수도로 삼음
셀림 1세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 정복,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 장악(→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
솔레이만 1세	동유럽 진출(헝가리 정복 등), 유럽의 연합 함대 격퇴(→ 지중해 교역에서 주도적 역할),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

③ 통치 : 티마르제(일종의 군사적 봉건제) 실시, 데브시르메 제도를 통한 예니체리와 관료 육성

술탄은 장관들과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그 논의 내용은 미래를 위해서 비이슬람교도의 자녀들 중에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용감하고 부지런한 젊은이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고 …… 이것은 그들을 부유하고 종교적으로 만들어 주는 수단이 되었고, 비이슬람교도를 복속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었다.
- 버나드 루이스, “중동의 역사” -



▲ 예니체리

오스만 제국에서는 그리스도교 청소년들을 징집하여 군대와 국가 기관에 종사하도록 하는 데브시르메 제도를 운영하였다. 징집된 청소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킨 후,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 예니체리나 관료로 육성하였다.

▣ 오스만 제국의 발전②

- ④ 경제 :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서 교역의 교차로에 위치, 동서 중계 무역으로 번영
- ⑤ 사회 : 다른 민족과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 실시(지즈야만 납부하면 비이슬람교도의 신앙 인정), 종교 공동체인 밀레트 인정
- ⑥ 문화 :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튀르크·페르시아·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융합, 천문학·수학·지리학 등 실용적인 학문 발달, 술탄 아흐메트 사원(블루 모스크) 건립



▲ 술탄 아흐메트 사원

▣ 티무르 왕조의 발전

- ① 성립 :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며 건국(14세기 후반)
- ② 발전 :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제국 건설, 오스만 제국 압박, 수도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동서 무역을 통해 번영
- ③ 쇠퇴 : 티무르 사후 세력 약화 → 우즈베크인에게 멸망

▣ 사파비 왕조의 발전

- ① 성립 : 이스마일 1세가 이란 지역에서 건국(16세기 초),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함, 전통적인 페르시아의 군주 칭호인 ‘샤’ 사용
- ② 발전 : 수니파 국가인 오스만 제국과 대립, 아바스 1세 때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기고 군사력 강화
- ③ 쇠퇴 : 왕실 내부의 갈등과 혼란, 아프간족의 침입 등으로 쇠퇴 → 멸망(18세기 전반)

FINAL CHECK!!

▶ 예니체리

오스만 제국 술탄의 친위 부대로, 튀르크어로 ‘새로운 군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사마르칸트

오아시스 도시로서 오랫동안 사막길 교역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티무르 왕조의 수도로 번성하면서 이슬람 세계의 문화 중심지가 되었다. 당시 이곳을 방문한 유럽 상인들은 사마르칸트를 ‘동방의 로마’라고도 불렀다.

밑줄 친 '동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뤼베크는 절친한 벗 함부르크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맹을 체결한다.

- 강이나 바다에서 해적의 습격을 당했을 때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공조한다.
- 범죄자에 대한 체포권과 처벌권을 공유한다.
- 가맹 도시의 시민에게 상업 활동을 공정하게 하지 않은 자는 해당 가맹 도시로 압송하여 처벌한다.

- 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 ② 발트해와 북해 무역을 주도하였다.
- ③ 정크선을 이용하여 아라비아와 통상하였다.
- ④ 고아, 플라카 등에 무역 거점을 마련하였다.
- ⑤ 바타비아(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교역하였다.

▶단원 :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주제 : 봉건 사회의 변화 - 교역의 확대와 도시의 성장, 한자 동맹(1241)

▶선지 분석

① 영국(1600), 네덜란드(1602) 등은 동방 진출을 목적으로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였다. ② 뤼베크, 함부르크 등의 북독일 도시들은 한자 동맹을 체결하여 발트해와 북해를 중심으로 교역 활동을 하였다. ③ 몽골 제국, ④ 포르투갈, ⑤ 네덜란드에 대한 설명이다.

▣ 교역의 확대와 도시의 성장

- ① 교역의 확대 : 원거리 교역과 동방 무역 발달 → 지중해 무역권(이탈리아의 베네치아·피렌체 등), 상파뉴 지방(정기시 발달, 지중해와 북유럽 연결), 북유럽 무역권(한자 동맹 결성)
- ② 도시의 성장
 - 자치권 획득 : 도시민들이 재력 또는 무력으로 특허장을 획득하여 자치권 행사 → 독자적으로 도시 행정 운영
 - 길드 조직 :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조직, 생산과 교역 활동 통제(상인 길드, 수공업자 길드)

▣ 서유럽의 장원제와 농노제의 해체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 경제 발달 → 영주가 농노에게 부역 대신 현물·화폐 지대 요구 → 농노의 지위 향상 • 흑사병의 유행 → 노동력 감소 → 농민의 처우 개선
결과	농노 해방과 자영 농민 증가 → 장원 점차 해체
농민 봉기	일부 영주들의 속박 강화 → 자크리의 난(프랑스, 1358), 와트 타일러의 난(영국, 1381)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3점]



예수회 선교사 (가) 은/는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다양한 서양 과학 지식으로 많은 중국인을 매료 시켰다. 그는 『천주실의』라는 교리서를 출간하여 가톨릭 선교의 기초를 닦았지만, 조상에 대한 제사 등을 인정한 그의 현지화 전략은 이후 전례 문제 발생의 단초가 되었다.

- ① 천공개물을 저술하였다.
- ② 곤여만국전도를 제작하였다.
- ③ 삼변의 난 진압에 공을 세웠다.
- ④ 수시력을 만드는 데 협력하였다.
- ⑤ 영락대전 편찬 사업에 참여하였다.

▶단원 :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주제 :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 명·청대의 문화

▶선지 분석

① 1637년 송응성(1590 ~ 1650), ② 1602년 마테오리치(1552 ~ 1610), ③ 1681년 강희제(재위 1661 ~ 1722), ④ 수시력은 이슬람 역법을 수용하여 1281년 괘수경이 제작하였다. ⑤ 『영락대전』은 1405 ~ 1408년에 걸쳐 편찬되었다. 마테오리치는 1582년 마카오에 도착하여 1583년에 광저우로 이동하였다.

PLUS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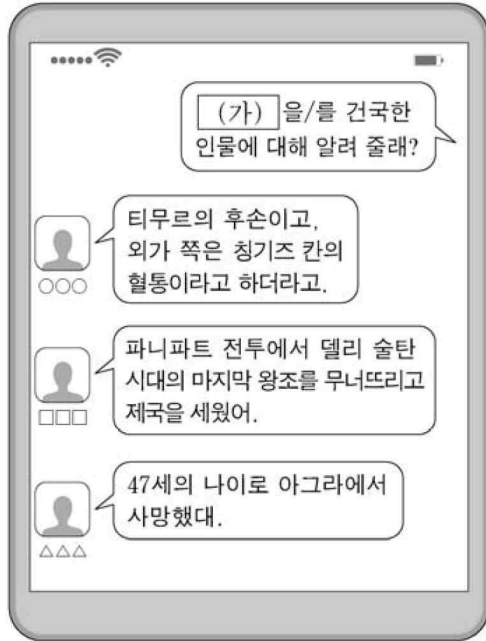
▣ 명·청대의 문화

- (1) 학문 : 명대에 관학인 성리학을 비판하며 양명학 등장, 실용적 학문 발달(“천공개물”, “본초강목”, “농정전서” 등 편찬) → 청대에 고증학·공양학 발달, “사고전서” 등 편찬
- (2) 서민 문화 : 명대 “삼국지연의”·“수호전”·“서유기” 등 인기, 청대 “홍루몽” 유행·경극 성행
- (3) 서양 문물 유입 : 명 말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서양 학문 소개(무기 제조, 천문, 지리 등), 마테오 리치의 활동(‘곤여만국전도’ 제작, 서광계와 함께 “기하원본” 간행) → 청대 아담 샬의 활동(역법 개정 등), 전례 문제로 선교사들이 대부분 추방되면서 서양과의 교류 위축

▣ 원대의 문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 문화 발달 : 원곡(희곡) 유행(“서상기” 등) • 다양한 종교 인정(각 민족의 종교, 문화에 대한 관용 정책), 티베트 불교 유행, 파스파 문자 제작 • 이슬람 문화 유입으로 천문학, 역법(“수시력” 편찬), 자연 과학 등 발달 • 동서 원거리 여행 활발 → 마르코 폴로, 이븐 바투타, 교황 사절 등 방문
----	--

(가) 제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3점]



PLUS CHECK!!

- ① 샤쿤탈라가 저술되었다.
- ② 자이나교가 출현하였다.
- ③ 우르두어가 사용되었다.
- ④ 쿠티브 미나르가 건립되었다.
- ⑤ 우파니샤드 철학이 등장하였다.

▶단원 :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역사

▶주제 :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

▶선지 분석

① 굽타 왕조, ② 기원전 6세기, ④ 아이바크 왕조, ⑤ 기원전 7세기의 사실이다.

▣ 델리 술탄 왕조 시대(1205 ~ 1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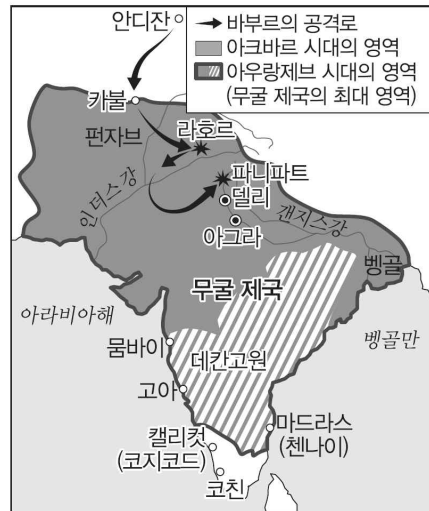
- ① 성립 및 발전 : 아이바크가 델리를 정복한 후 이슬람 왕조 수립, 이후 델리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왕조들이 연이어 세워짐, 북인도 지역 지배
- ② 사회·문화 : 지즈야만 납부하면 다른 종교의 신앙 인정, 카스트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일부 힌두교도가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도 함,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 노력

▣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

- ① 성립 : 16세기 초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진 바부르가 북인도 정복,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왕조 개창
- ② 발전

아크바르 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토 확장 : 데칸고원 이남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 통일 • 중앙 집권 체제 확립 : 관료제와 지방 행정 구역 정비 • 정책 : 힌두교도를 관료로 등용, 토착 힌두교 세력 출신 여인과 결혼,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지즈야 폐지
아우랑제브 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토 확장 : 인도 남부 지역까지 진출(최대 영역 확보) • 이슬람 제일주의 지향 : 힌두교 사원 파괴, 지즈야 부활

- ③ 쇠퇴 : 시크교도(편자브 지방)와 마라타 동맹(중부 인도) 등의 반란, 영국과 프랑스 등 서양 세력이 침투하여 세력 확장



FINAL CHECK!!

▶ 쿠트브 미나르



아이바크가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이다.

▣ 무굴 제국의 경제·문화

- ① 경제 : 인도양 무역 발달(면직물·향신료 수출) → 서양 상인들의 진출 이후 쇠퇴
- ② 문화 :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
 - 언어 : 힌두어에 페르시아어, 아랍어 등이 합쳐진 우르두어가 널리 사용됨, 공식 문서나 외교에서는 페르시아어 사용
 - 종교 : 이슬람교 발전, 힌두교 등의 다른 종교 인정, 편자브 지방에서는 시크교 발전(나나크가 창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
 - 건축 : 타지마할(이슬람 건축 양식에 인도의 연꽃무늬 등 가미)
 - 무굴 회화 발달 : 페르시아의 세밀화와 인도 양식의 조화



타지마할은 그토록 사랑을 불러일으켰던 뭉타즈 마할, 그리고 자신의 죽은 여인을 전대미문의 찬란함으로 감싸 주려 했던 그 남편의 모습, 반짝이는 깃털이 꽃힌 황금 터번을 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
- 피에르 로티 -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제5대 황제 샤자한이 죽은 아내인 뭉타즈 마할을 추모하며 세운 묘당이다. 타지마할의 뾰족한 탑과 아라베스크 무늬, 둥근 돔 등은 이슬람 양식이며, 돔 지붕 꼭대기의 연꽃무늬 장식과 돔 지붕 좌우에 배치된 차도리(작은 탑) 등은 인도 양식에 해당한다.